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는 이 시기에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 신청 안내**
 * 신청하실 분은 광광주 예로니모 형제님 (614-214-677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선교담당 발런티어:** 김정일 그레고리오
- ◆ **성전관리 발런티어:** 서경환 프란치스코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홍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 시-1 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 ◆ **천교 준비 봉사자**
 - 11 월 9 일: 김명호
 - 11 월 16 일: 박종현
- ◆ **11 월 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2008 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 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6,190 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25.00
교 무 금	\$1,340.00
BAA	\$200.00
감 사 헌 금	\$100.00

- **교 무 금:** 박귀영 최규선 신현태 정동완 김한식 이현정 인영범
- **BAA :** 조도순 익명
- **감사헌금:** 김소연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32주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축일) November 9,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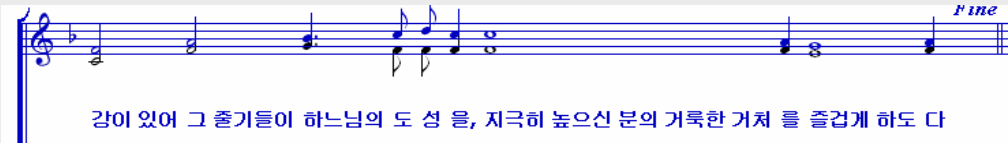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에제키엘서 47,1-2.8-9.12

“나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이가 구원되었다.”

화답송



제 2 독서 코린토1서 3,9c-11.16-17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13-22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2,635단 19명
이호영	145단 2명	13,556단 78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100단 1명	6,995단 72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45단 3명	222/04-11/2/08 (246주)

☞ 총누계: 204,316단 12,691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1월 9일	11월 16일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독서/봉헌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67 ♫ 봉헌: 210
♫ 성체: 500 499 ♫ 파견: 69

생명의 말씀

우리의 내적 성전

박성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현재 우리 서울대교구 성당의 숫자는 217개입니다. 지난 10년 남짓 교구에서 새로 봉헌된 성당의 숫자는 1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성당이 늘어났지만 마음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성당이 늘어나는 그 숫자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당이나 교회 건물이라는 외적 성전은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외적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 성전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영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나의 여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이사 66,1).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외적 성전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루카 21, 6).

오늘 복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19).

사람이 지어 만든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인 주님의 몸 앞에서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 통하는 문이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바로 사도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1 코린 6,19).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2 코린 6,16).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욕심과 불신앙으로 돌돌 뭉쳐진 나를 허물어야(大死一番 대사일번),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絶後再蘇 절후재소).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요, 우리의 성전신앙입니다. 거짓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참 신앙의 내적 성전을 쌓아올리는 일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라테라노 성전 봉헌 축일을 함께 축하합니다.